

유럽, 경계론 속 코로나19 봉쇄 속속 완화

독일 바이에른주 등 영업 재개 세르비아 국가비상사태 종료 마크롱 "아직 물리치지 못해" 이탈리아 총리도 "갈 길 멀다"

유럽대륙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며 각국이 속속 봉쇄 조치 완화에 나서며 가운데 한편에서는 선별된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5일(현지시간)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유럽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49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2만3000명 이상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이 25만561명으로 가장 많고 이탈리아 21만3013명, 영국 19만4990명, 프랑스 17만551명, 독일 16만6424명, 러시아 15만5370명, 벨기에 5만509명, 네덜란드 4만1087명, 스위스 3만9명 등의 순이다. 사망자도 하루새 2000명 가까이 늘어 총 14만4000명을 넘어섰다.

영국이 2만9427명으로 이탈리아를 뛰어넘어 유럽 최대 인명피해 국가가 된 게 눈에 띈다.

영국 다음으로 이탈리아가 2만9315명, 스페인 2만5613명, 프랑스 2만5531명, 벨기에 8016명, 독일 6993명, 네덜란드 5168명, 스웨덴 2854명, 스위스 1790명, 러시아 1451명 등이다.

봉쇄 완화 흐름도 이어졌다. 독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남부 바이에른주는 기존의 외출 제한 조치를 접촉 제한 조치로 낮추는 한편 18일부터 음식점의 야외 테이블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북부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주에서도 9일부터 음식점의 영업 금지가 해제되고, 25일부터는 호텔 영

업도 정상화된다. 발칸반도의 세르비아는 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7일부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달 26일에서 연기된 총선을 오는 6월 21일 치르기로 잠정 결정했다. 세르비아 당국은 국가비상사태 종료에 앞서 4일부터 대중교통 운영을 정상화하고 음식점·카페 등의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하지만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TV 인터뷰에서 "바이러스는 아직 여기 있다. 우리는 이를 물리치지 않았다"며 긴장의 끈을 풀 단계가 아니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6월 초까지는 바이러스의 갑작스러운 재확산을 피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여름 휴가를 갈 수 있을지 전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부연했다.

그는 "여름 휴가철 기간에도 주요 국제 여행을 제한할 것"이라며 "우리는 유럽에 남아있을 것이며, 이보다 더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오는 24일 기한인 국가보건비상사태를 7월 24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다만, 바이러스 확산세가 누그러졌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단계적으로 학교와 상점 등의 문을 열 예정이다. 자택에서 100km 이내 거리의 여행도 허용된다. 지난 4일부터 제조업·도매업·건설공사 등을 정상화하는 등 봉쇄 완화 조치를 시작

한 이탈리아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경계하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매일 코로나19 데이터를 관찰하며 봉쇄 완화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 이전의 강력한 봉쇄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오는 18일 일반 소매 상점을 열고, 내달 1일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을 정상화한다는 시간표를 짰다. 다만, 휴교령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합뉴스



영업 재개한 로마 식당
이탈리아 로마 시민들이 5일(현지시간) 포장주문만 허용된 식당 밖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를 2달 만에 완화했으며, 440만명이 일터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작스러운 재확산을 피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여름 휴가를 갈 수 있을지 전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부연했다.



미국 유통점 육류 구매량 제한
5일(현지시간) 미국 애들랜타 퍼블릭스 슈퍼마켓 매장을 찾은 한 손님이 돼지고기 포장 제품을 고르고 있다. 이 매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급 부족을 이유로 돼지고기 구매량을 1인당 2개로 제한했다.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체인들도 이미 육류 구매 제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유통점 육류 구매량 제한 5일(현지시간) 미국 애들랜타 퍼블릭스 슈퍼마켓 매장을 찾은 한 손님이 돼지고기 포장 제품을 고르고 있다. 이 매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급 부족을 이유로 돼지고기 구매량을 1인당 2개로 제한했다.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체인들도 이미 육류 구매 제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항공업계 한달에 12조원 날렸다

유럽 항공사도 줄줄이 적자

코로나 19 팬데믹(대유행)으로 각국 봉쇄와 여행객 급감 사태가 맞물리면서 미국과 유럽 주요 항공사들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CNN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항공사들은 최근 불과 한 달 사이에 100억 달러(약 12조2700억 원) 넘게 손실을 봤다.

미국 항공업계 단체인 '에어라인 포 아메리카'는 미 상원 청문회 증언에 앞서 미 주요 항공사 비행기 편대 중 거의 50%인 3000여 대가 지상에 발이 묶인 상태라고 밝혔다.

항공편별 평균 여행객 수는 미 국내선이 편당 17명, 국제선이 편당 29명이라고 이 그룹은 전했다.

이 단체의 니콜라스 칼리오 최고경영자(CEO)는 예약 여행자가 거의 100% 손감했다면서 "항공사들이 모든 기존 티켓

을 전부 환불해주고 나면 현금 유동성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항공사들은 6월에 예정된 항공편도 80% 이상 취소했다. 미 항공 여행객 수요는 3월 이후 95%까지 급감했다. 미 재무부는 항공산업에 250억 달러의 현금 지원을 실行了. 9월 30일까지는 대량 감원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10월 1일 3450명의 관리사 무직을 감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도 연내 1만6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유럽 항공업계도 유동성 사정이 악화일로인 것은 마찬가지다.

유럽 대표 항공사 중 하나인 루프트한자는 1분기에 120억 유로(약 15조9700억 원)의 적자를 봤다고 이날 밝혔다.

루프트한자 경영진은 "한 시간에 100만 유로(13억3천만 원) 꼴로 유동성에 구멍이 나고 있다"고 한탄했다. /연합뉴스

일본 10세 미만 어린이 코로나 감염 급증

부모 통한 가정내 전염 많은 듯

일본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가 급증하고 있다.

6일 요미우리신문이 각 지자체 발표 내용을 토대로 연령별 감염자 현황을 집계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10세 미만의 어린이 감염자 수는 242명이다. 이는 전체 감염자의 1.5%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10세 미만 감염자로는 지난 2월 21일 홋카이도 거주자 1명과 중국 우한 귀국자 1명 등 2명이 처음 확인됐다. 이후 3월 말까지 전체 감염자 수는 30명 미만에 머물렀다.

그러나 4월 12일 100명, 4월 25일 200명대를 넘는 등 지난달 들어 급증세를 보여 10세 미만 감염자의 90% 정도가 지난 4월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요미우리신문은 휴교 기간이 길어지면서 직장 일 등으로 외출하는 부모를 통해 어린 자녀가 걸리는 가정 내 감염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소아과학회 이사인 모리우치 히로유키 나가사키대 교수(소아감염증)는 어린이는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화할 위험이 크지 않지만 증상을 보일 경우 먼저 단골의사에게 전화해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브라질 상파울루, 마스크 의무화 초강수

위반시 벌금 최대 6천만원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인구 4500만 명의 상파울루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한 초강경 조치가 시행된다.

상파울루주 정부는 5일(현지시간) 주 양 도리아 주지사 명의로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오는 7일부터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게는 276해알(6만1650원)에서 최대 27만6000해알(6165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또 고의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적발되고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1년간 구금 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상파울루주에서는 전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사용이 의무화됐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며, 이 조치는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에도 적용되고 있다.

지방 정부들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의무화하는 지역도 늘고 있다. 전국 27개 주(수도 브라질리아 포함)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주는 최소한 4곳이다. 주도(州都) 가운데는 6개 도시는 의무화됐다. /연합뉴스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아시아·유럽에서도 만든다

'길리어드' 컨소시엄 구성 추진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를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5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는 "유럽과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적어도 2022년까지 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복수의 제약, 화학 회사에 권한을 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약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도록 다른 제조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제약회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는 인도와 파키스탄 제약사와 기술 공급을 위한 장기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 중이며, 방글라데시 최대 제약사인 백심코는 이달 중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는 다만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렘데시비르의 가격을 얼마에 책정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식권과 환자 단체는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제조하는 HIV 치료제나 C형 간염 약의 가격이 비싸다는 점 때문에 렘데시비르에 적정 가격을 매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

MERITZ 손해보험협회 Hanhwa 손해보험 Lotte 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SAMSUNG 삼성생명 현대해상화재보험 AIG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AXA AXA 다이렉트 BNP PARIBAS CARDIF The K 손해보험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외환지용차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K TMA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